

천년을 이어온 기록 문화 놀이터가 되다

경남 합천 '대장경테마파크'

1521년 완성된 고려 제조대장경 현존 최장 목판본
가장 완벽한 불교 경전...몽골 맞선 백성 염원 담겨
국보·세계유산 지정...2011년 전시·체험 공간 조성

목판 모형 만져보고 글자 배열 확인하며 제작 체험
팔만대장경 옮기는 과정 담은 미디어아트 최고 인기
서예작품·회화·서각 등 지역 예술인과 협업 기획전도

방향과 배열을 눈으로 확인하며 기록이 만들어진 방식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된다.

목판 제작 체험 공간에서는 나무판에 문자가 새겨지는 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볼 수 있다. 글자가 새겨진 목판을 문질러 인출해보는 체험을 통해, 한 장의 경판이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정성과 시간이 필요했는지를 몸으로 느끼게 된다. 아이들은 종이에 드러나는 글자를 신기하게 바라보고, 부모들은 고려 장인들의 기술과 집념을 생각해본다.

이어지는 공간에서는 목판을 오랜 세월 보존하기 위한 건조와 보관 방식이 소개된다. 단순한 설명 대신 영상과 모형, 체험 요소를 활용해 왜 바닷물에 담갔는지, 어떤 환경에서 목판이 보존됐는지를 이해하도록 구성했다. 기록을 지켜내기 위한 과학적 지혜가 자연스럽게 전달된다.

◇팔만대장경의 이동, 회면 속 여정을 따라가다= 가장 많은 관람객이 머무는 공간은 팔만대장경을 해인사까지 옮기는 과정을 구현한 실감형 미디어아트 전시다. 대형 스크린에 펼쳐진 장면은 관람객의 움직임에 반응하며 이어지고, 화면 속 인물과 행렬은 실제 이운 과정을 따라 천천히 이동한다.

관람객은 단순히 영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화면 앞을 걸으며 기록을 지켜낸 사람들의 여정에 동참하게 된다. 아이들은 움직이는 장면을 따라 걷고, 가족은 자연스럽게 한 공간에서 함께 체험을 공유한다. 기록이 주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사람의 손과 발로 지켜진 역사라는 점이 선명해지는 순간이다.

◇보고, 만들고, 배워보는 기록문화 체험= 체험관에서는 연령대별로 참여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어린이를 위한 기록문화 체험에서

는 간단한 인쇄 체험과 함께 자신만의 '작은 경판' 그림을 만들 어보는 활동이 진행된다.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는 기록과 인쇄의 원리를 이해하는 심화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5D영상관에서는 팔만대장경의 제작 배경과 역사적 의미를 입체 영상으로 풀어낸다. 화면과 좌석의 움직임, 음향 효과가 결합돼 기록문화 이야기가 더욱 생생하게 전달된다. 짧은 시간 안에 대장경의 핵심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 관람 동선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어준다.

◇기록과 예술, 오늘의 언어로 만나다= 대장경테마파크에서는 기록문화가 예술로 확장된다. 지역 예술인과 협업한 기획전시에서는 서예 작품과 회화, 서각 작품을 통해 기록의 정신을 현대적으로 해석한다. 목판에 새겨진 문자와 현대 작가의 표현이 한 공간에서 만나며, 기록이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현재의 문화입니다.

관람객은 전시를 둘러보며 기록의 의미를 각자의 방식으로 다시 읽게 된다. 아이에게는 그림과 형태로, 어른에게는 사유의 대상으로 기록이 남는다.

◇기록은 남고, 경험은 이어진다= 합천군은 대장경테마파크를 단순한 관람시설이 아닌 체험형 기록문화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노후 시설을 정비하고 실감형 콘텐츠를 확충해 기록의 깊이와 현대적 감각을 함께 담아낼 예정이다. 가야산과 해인사,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류형관광 흐름도 이어갈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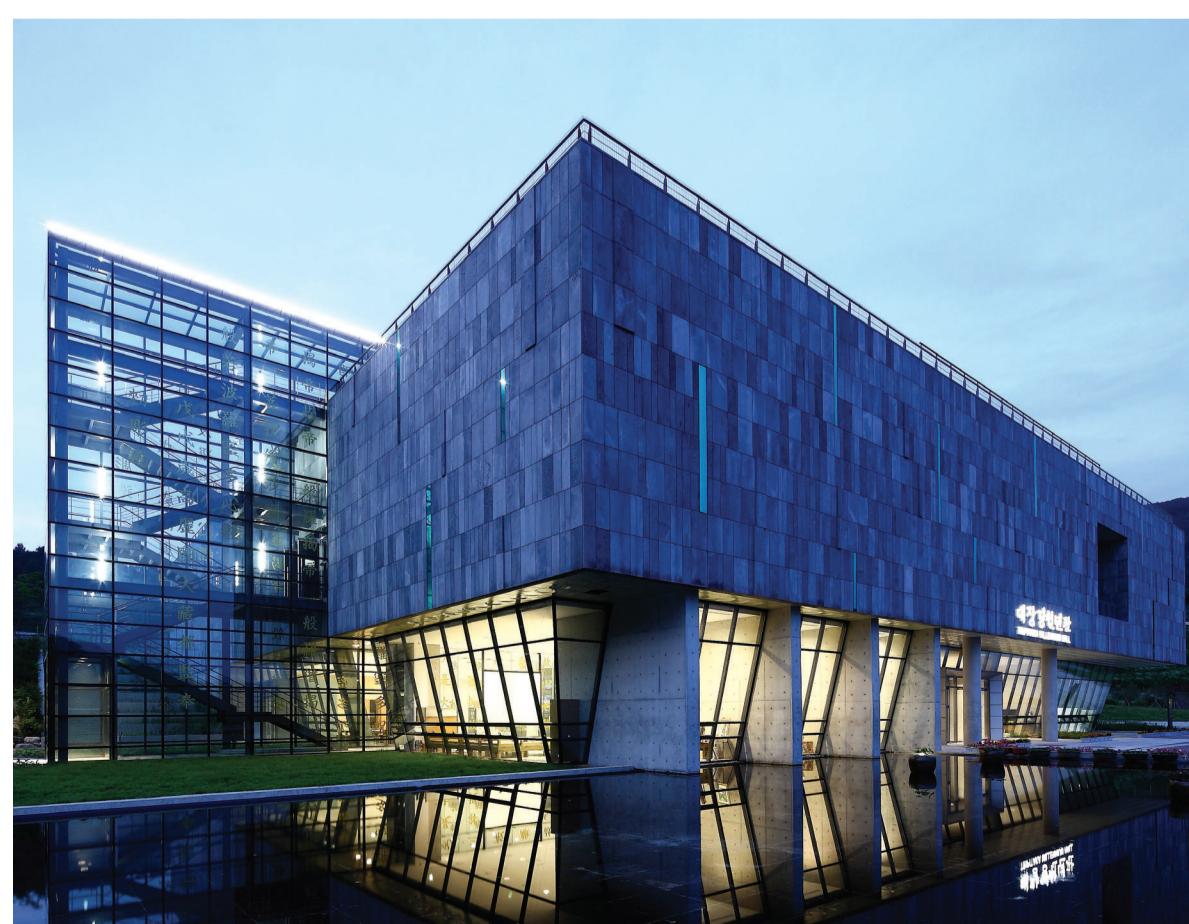
합천군 관계자는 "대장경테마파크는 세계기록유산의 가치와 합천의 문화자원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방문객 눈높이에 맞춘 체험·교육 콘텐츠를 꾸준히 개발해 더욱 풍성한 문화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천년을 견뎌온 기록은 이렇게 오늘의 경험으로 살아난다. 대장경테마파크는 팔만대장경을 박제된 유산이 아닌, 지금 이곳에서 직접 만지고 느낄 수 있는 문화로 바꾸고 있다.

〈경남신문 이종구 기자 jglee@knnews.co.kr〉



대장경테마파크 기록문화관 풍등.



대장경테마파크 천년관 전경.

〈합천군 제공〉